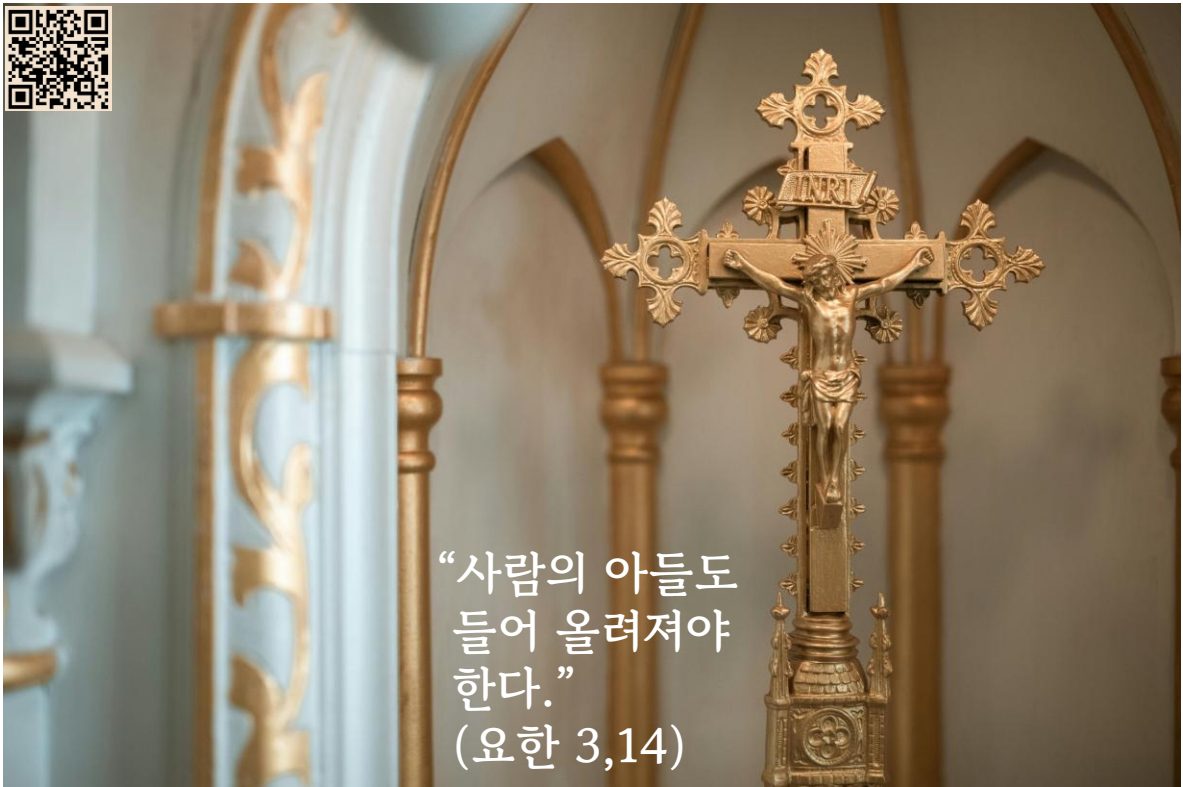


아quem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요한 3,14)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와 상처는 치유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의 희생 제사인 미사에 경건히 참여하며 우리 또한 각자의 몫인 십자가를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묵묵히 지고 갈 것을 다짐합니다.

• 제1독서

민수 21,4ㄴ-9

• 입당송 갈라 6,14 참조

• 화답송 시편 78(77),1-2.34-35.36-37.38(◎ 7ㄴ)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 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죽이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2독서

필리 2,6-11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3,13-17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움이신 주님,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화합과 연대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지구촌 곳곳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돕고자 앞장서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의 주님,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굽어살피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며, 사회의 관심과 이웃의 나눔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12,32 참조

[카타르] 본당 한인 공동체 담당 사제 인사 이동

작년부터 한인 커뮤니티를 담당해주셨던 카를로스 신부님께서 9월 8일 요르단 암만으로 소임지를 이동하시고, 자코모 신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9월 6일 19시 30분에 카를로스 신부님 송별 미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신부님께서 새로이 맡은 소임을 주님의 은총에 따라 건강히 해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UAE] '추석' 명절 위령 미사



- ▶ 아부다비: 9 월 27 일 토요일 12:00, 페리쉬 홀
- ▶ 두 바 이: 9 월 28 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 지향은 당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상: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시: 9 월 27 일 (토), 20시 (UAE)
- ▶ 방법: 아캠 공용 줌으로 접속 (회의번호: 415-165-8183 / 비밀번호: 1004)



[교종 레오 14세] 9월 기도 지향

9월: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께 사랑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바이 공동체>: 본당 'Altar Servers Day' 복사 희년 미사 및 축하 행사



차지민 아녜스
차지원 스텔라
김선우 스콜라티카

8월 31일 (주일) 2:00 pm

<아부다비 공동체>: 신입 복사 입단식



권지오 루카
김지완 레오
이성진 가우덴시오

9월 6일 (토) 12:00 pm

성 십자가의 모든 것

9월 14일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성 십자가를 공경하고 묵상하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이다. 성 헬레나(250?~330년)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성 십자가(보목)는 전 세계 여러 성당에 나눠 안치돼 있다. 성 십자가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보목에 대해 알아본다.



성 십자가의 발견, 1385~1387, 아놀로 가디 작

성 십자가 공경의 역사와 의미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성 십자가 공경은 4세기 초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뒤부터 시작돼 692년 트룰라눔 교회회의를 통해 강화됐고 787년 제2차 니케아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9월 14일로 고정됐다.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는 세 가지를 기념한다. 첫 번째는 성 헬레나가 십자가를 발견한 것, 두 번째는 335년 9월 14일 예루살렘의 예수님 무덤 자리에 세워진 부활 대성전을 콘스탄티누스 대제(272~337)가 봉헌한 것, 세 번째는 629년 헤라클리우스 황제(575~641)가 페르시아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혔던 십자가의 일부를 탈환한 사건에 대한 기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악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나 실패의 표지인 형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구원의 표지로 다가온다.

성 헬레나가 찾은 성 십자가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황후 성 헬레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320년에서 345년 사이에 골고타 언덕에

서 몇 개의 십자가를 발견한다. 그중 하나는 병자들의 치유를 돕는 데 특별한 효과를 보였고 다른 하나는 죽은 청년을 되살리기까지 했다. 이 두 개가 바로 회개했던 우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 십자가로 여겨졌다.

성 헬레나는 성 십자가를 셋으로 나눠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보내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주교인 성 마카리오(335년경)에게, 남은 부분은 로마로 가져왔다.

성 헬레나는 로마의 자신의 궁전 안에 있는 방 주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유물들을 안치하기 위한 성 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을 지었다. 당시 성당 바닥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흙으로 덮였다.

성당은 몇 번의 개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고 현재에도 보목 일부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에서 나온 가시 등 성유물이 모셔져 있다.

보목이 안치된 우리나라 성지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성 십자가 조각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보목이 안치된 성지는 광주대교구 가톨릭목포성지 산정동준대성전과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서울대교구 절두산순교성지이다.

보목은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조배를 위해 유리 밖으로 꺼내진다.

가톨릭목포성지 주임 윤영남 신부는 “보목 앞에서 묵상하면 십자가라는 약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힘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더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며 “십자가 현양은 예수님의 죽음심뿐 아니라 부활도 상징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곶순교성지 담당 민동규 신부는 “우리는 보목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만남의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다”며 “특히 십자가의 세로 모양은 하느님과 사람의 연결, 가로는 사람의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데,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시간이라는 한 점에서 하느님과 사람의 만남을 묵상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2025 창조시기 기도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하나 된 믿음을 주셨으니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저희는 지금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창조세계에서, 또 저희의 참모습에서 너무 멀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탐욕과 파괴의 충동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지구와 맺은 관계를 깨뜨렸음을 인정하나이다.

비옥했던 들판은 메마른 땅이 되고, 숲은 황폐해졌으며,
강과 바다는 오염되었나이다.
풍요롭던 공동체들은 고통으로 물들고 땅은 부르짖고 있나이다.

사랑하올 그리스도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샬롬”하며 평화를 주셨으니,
연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복돋워 주소서.
주님과 함께, 온 세계 신앙공동체와 함께,
인류 가족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갖 갈등을 종식시키고
깨어진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위하여 일하도록 저희 마음을 밝혀 주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 피조물의 상처를 돌보고
세상이 입은 상처와 굳건히 연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여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평온한 안식처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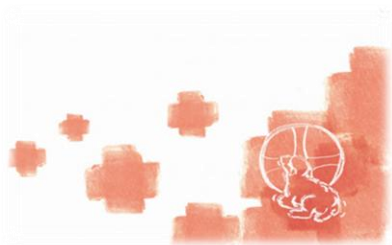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순교자 성월 기도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 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히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를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22>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유·생명 보장하는 십계명

첫영성체 기도문 외우기를 하던 한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 십계명 내용이 어려워요.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요. 어린 학생들이 십계명 뜻을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뜻을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실생활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십계명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그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법 없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오게 하고, 시나이산에서 열 가지 ‘우리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탈출 20,1-17 참조)

십계명은 처음엔 유대인 학자 필로에 의해 분류됐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를 따르다가 서기 5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노가 분류한 것을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해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개신교에는 아직도 필로의 분류를 따르는 교파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그 원천에서 나오는 자유와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규범입니다. 그 근본 정신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2000년 동안 서구 문화의 근본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종교들도 계율을 만드는 데 십계명을 인용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십계명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길 △공동체가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규범 △하느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기본질서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계명~제3계명 :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 - 인간이 하

느님께 취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4계명~제10계명 :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 인간 상호 간에 취할 사회적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제1계명~제3계명)

제1계명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탈출 20,3-6)

제1계명은 명하는 계명과 금하는 계명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명하는 법

창조주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공경해야 한다.
부모·형제·국가보다 절대적인 존재로 흠송해야 한다.

흠송은 ‘내적 흠송’과 ‘외적 흠송’으로 나뉜다. 내적 흠송은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향주 삼덕(하느님께 대한 덕, 즉 믿음·희망·사랑)이다.

외적 흠송은 신앙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전례·성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하는 법

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경하는 것(우상·잡신 등을 신격화해 섬기거나 굿하는 것)

② 하느님이 아닌 것에 의지해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점술·철학관·풍수설·토정비결·손금·관상·사주 등)

③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성직자와 수도자·성당·성물·교회 묘지 등)

④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을 흠송하지 않는 것(무교주의나 무신론·거짓 기적·거짓 예언 등)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2025 하반기 아캠 공용 줌(zoom) 사용 일정 (9/01, 2025 업데이트)

- 공용 줌은 아캠 내 모든 한인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단체는 '아캠 사무국'에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요 일	UAE 시간	모 임	비 고
주 일			
월요일	8:30 ~ 10	아부다비 수험생 기도	
화요일	9:30 ~ 11	두바이 수험생 기도	매월 첫 번째/세 번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9 ~ 20	두바이 레지오 마리아 (첫째, 셋째, 다섯째 주 목요일)	사막의 별 Pr. (단장: 052. 879. 4841)
금요일			
토요일	20 ~ 21	아캠 상임위 회의	작수 달 네번째 토요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01: 두바이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수험생 기도모임 일정 추가)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채팅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